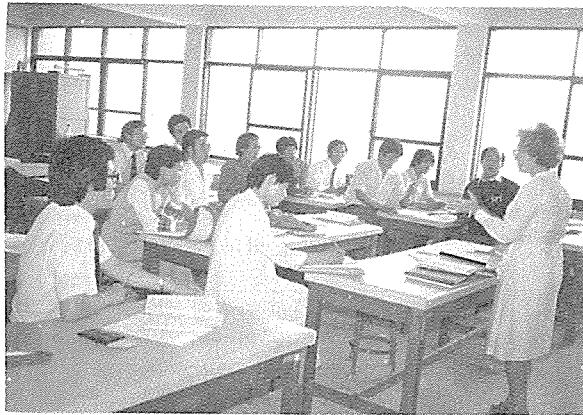


3호 1981. 6. 30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 교육관리위원회개최 ■



■ 주최 :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주관 : 교육관리위원회
■ 후원 : 신구전문대 물리치료과

6월 13·14일에 거쳐 신구전문대 후원아래 김용주 위원장, 구애련씨 및 여러 교수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외국에서는 협회 안에서도 전문연구 분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구성되어 있듯이 한국물리치료사협회에도 교육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었다.

각 학교 학생들의 실습문제는 각 학교측의 협조로 각 질병의 Acute stage부터 Recovery stage 까지 실제로 치료하는 것을 video로 담아 실습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라도 학교 수업시간과 겹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병원마다 실습생을 열마정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과 실습생 1인당 환자를 몇 명이나 볼 수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물리치료사가 최소한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진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철학이 있어야 하며 가르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물리치료사가 발전하려면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고시의 개선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차원 높은 국가고시가 되어야 한다.

즉, 전공파목과 공통파목으로 나누어 전공파목으로는 물리치료 개론과 운동치료 개론으로 나누어 문제수를 조정하면 물리치료 개론안에 전기치료 25 문제, 광선치료 5 문제, 근육 경진 및 평가가 15 문제, 의수족과 보조기 10 문제, 수치료 5 문제로 전체 60 문제이며, 운동치료 개론은 50 문제로써 운동치료 30 문제, 임상 운동학 10 문제, 임상의학을 10 문제로 했으며 실기 시험의 방법으로는 4 가지의 제안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최소한도 6개월 간 지정 종합병원에서 실기 실습한 후 최종 합격증을 발급한다는 실질적으로 실기 시험이 없어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기 시험문제를 각 학교에서 출제하여 시험관이 문제를 선정하는 것과 세 번째로 실기 시험시 필기고사 합격자를 몇 Group으로 나누어서 Group Test를 하는 방법과 네 번째로 한 Group이 수험생 10명, 시험관은 2~4명씩 한 조를 이루어 슬라이드 또는 구두로 질문하여 필기로 답을 기입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4 가지 중 어떤 것을 채택하든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살리며 실기 시험 만큼은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참여 없이 우리 물리치료사를 자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술 대회의 주제 선정은 학술이사 및 학술위원회에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개최 일시와 장소는 11월 중에 인천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결정지어졌고 면허시험을 위한 문제집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제집들은 중복이 많이 되고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 주관하에서 문제집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학교에서도 문제 출제를 의뢰할 경우 많은 협조를 바라고 문제집을 빠른 시일 내에 출간하여 전학교 학생들이 구입해서 볼 수 있게 하며 그 이익금은 협회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투고 환영 ※

참여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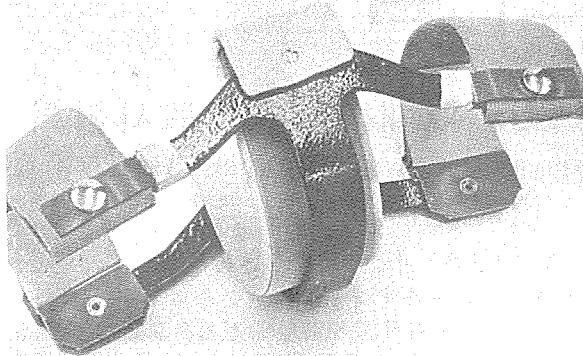
논단(1면), 학술 및 집담·좌담회 초록(2면)

지부·병원·회원 탐방·회원 작품(3면)

협회소식·전의·질의·응답·광고 등(4면)

원고 마감: 매월 15일

■ Swedish Knee Cage ■



〈편집부〉

임상에서 무릎이 뒤로 휘어있는 환자를 많이 보게 되며 이와 같은 기형을 Back Knee, Hyperextension 또는 Genu recurvatum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교정이나 예방을 하기 위하여 보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Genu recurvatum(反張膝)의 교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는 Long Leg Brace의 양쪽 upright에 Knee Pad를 대여 주어서 삼점압의 원리(3 Point Pressure Principle)를 적용하여 무릎 뒷쪽에 있는 위 아래의 금속밴드와 Knee Pad로 고정시키게 된다. 또는 long leg brace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같은 원리로 Knee Splint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스웨디쉬 니 케이지는 3 점압의 원리는 같으나 그 누르는 압점이 반대로 되어 있다. 즉 무릎 전면의 위 아래에 그리고 슬릭부(popliteal area)를 누르게 되어 종래의 방법과는 반대 방향의 입장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모양과 장점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스웨디쉬 니 케이지는 1966년 스웨덴에서 고안되어 만들어졌으며 의수족 연구발달위원회(Prosthetics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재활의학협회(Institute of Rehabilitation)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스웨디쉬 니 케이지의 모양은 프라스틱으로 코팅된 두개의 upright에 후면으로 반원형의 알미늄바가 수평으로 슬릭부를 돌아연결되어 있다. 양쪽 upright 전면의 위 아래에는 각각 Webbing strap(직물로 만들어진 띠)이 연결되어 있고 뒷쪽으로는 fluid filled pad가 내측 upright에 연결되어 슬릭부를 감도는 반원형의 알미늄바 아래를 지나 반대측 upright에 연결되어 Hammock(야외에서 나무와 나무에 연결하여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만든 그물같은 침대의 일종) 효과를 나타내며 슬릭부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무릎 전면의 위 아래에 있는 strap은 내측 upright에 고정되어 부착되어 있고 외측 upright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snap button(똑딱이 단추)을 끼워 보조기를 신고 벗기가 쉽게 되어 있다.

Posterior pad의 깊이는 환자다리의 크기에 따라 또는 recurvatum의 정도에 따라 적당히 조절 할 수가 있다. C. P. O Lehneis의 연구에 의하면 multiple sclerosis(多發性硬化症) Hemiplegia(半身不隨) Traumatic Hemiplegia(外傷性半身不隨) Quadri paresis(四肢不全麻痹) Fracture Lt Tibia & Fibula 左側胫骨腓骨骨折 post poliomyelitis(灰白脊髓炎) 후유증 등 6명의 Genu-recurvatum의 기형을 나타내고 있는 환자에게 스웨디쉬 니 케이지를 맞추어 준 결과 모두 성공적으로 슬반장을 방지 할 수 있었고 어느정도 무릎의 내외측 안정성도 대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보조기의 장점은 간추려 종합해 보면

1. 슬반장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2. 무게가 가볍다.
3. 보조기의 슬관절과 자물쇠(mechanical knee joint & lock) 그리고 knee pad가 필요 없다.
4. 무릎을 구부릴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구부릴 수 있다.
5. 맞추기 쉽고 보조기를 신고 벗기가 편하다는 것이다.

이 보조기의 단점은 환자가 의자에 앉을 때 upright의 양끝이 두드러져 나온다는 것이며 2주내지 3주간 신고 있으면 Posterior fluid pad가 느슨하게 된다는 것이고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이였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의수족 연구발달 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제4회 하지 보조기 워크샵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수정이 된 스웨디쉬 니 케이지가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것은 Charles Rosenquist(주소: Columbus Orthopaedic Appliance Co. Columbus Ohio 43222)에 의하여 개발된 것 이었다. 첫 번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Preflexing" 방법이 도입되었는데 그것은 즉 보조기의 upright를 어느 정도 미리 구부려 놓아 환자가 앉을 때 upright 양끝이 두드러져 나와 보기 흉하게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fluid filled pad 대신에 좀 더 질기고 튼튼한 Foam-rubber pad로 대체하였고 upright 위에 구멍을 여려개 뚫어 각도의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osterior pad의 조절은 환자를 일어서게 한다음에 무릎의 alignment를 맞추기 위하여 앞으로 내밀어 보고 뒤로 늦추어 보아 얼마만큼 posterior pad를 조절 해야 무릎이 똑바로 유지되는가를 결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절은 posterior pad에 부착되어 있는 나사(Screw)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이제 까지 소개한 스웨디쉬 니 케이지의 장점을 살펴 보면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고 유익하다는 생각이 될 것으로 믿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니 케이지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회장단 동정 및 협회 현황

1. 1981. 5. 8 정화사업 보완 감사
2. 1981. 5. 15 협회 회장, 인천 분회장, 협회사무국 방문 접담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논의.
3. 1981. 5. 21 정진우 회장 오경환 학술이사 협회사무국 방문 이사회 개최에 대한 지시. 교육관리위원회 소집 의뢰의 건에 대한 논의.
4. 1981. 6. 1 김용주 부회장, 함용운 재무이사 협회사무국 방문. 교육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협의 (회의 내용 작성, 6월 13일 본회의, 14일 친목도모)
5. 1981. 6. 2 제 2 차 접담회 개최
6:30 (PM) ~ 8:30 (PM) 서울 대학병원 C 강당.
주제 : nemectrodyne의 원리 및 사용법.
6. 1981. 6. 2 의료술파리위원회 개최.
참석자 : 김형섭, 김용주, 석일현, 배승학, 정진우, 함용운
7. 1981. 6. 12 정진우 회장, 함용운 재무이사 협회사무국 방문 교육관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협의
8. 1981. 6. 13 정진우 회장, 배승학 총무이사 참석
장소 : 신구전 문예.
9. 1981. 6. 16 재무부장 송별회를 가짐.
10. 1981. 6. 25 의료보험술파리 및 일반술파리 인쇄물 제작배부.
11. 1981. 6. 25 현재 중간결산
총수입 : 4,298,555
총지출 : 2,131,340
잔액 : 2,167,215

- 81년도 회비 납부자 명단 -

〈제 2 호에 이어 계속〉

1. 오종택 (No. 15)
2. 박순용 (No. 19)
3. 이명혜 (No. 31)
4. 위석희 (No. 33)
5. 김인숙 (No. 45)
6. 황현교 (No. 50)
7. 김지혜 (No. 60)
8. 표성봉 (No. 129)
9. 채수성 (No. 160)
10. 임운철 (No. 163)
11. 박찬의 (No. 175)
12. 한현숙 (No. 184)
13. 강정구 (No. 195)
14. 김순자 (No. 205)
15. 문수진 (No. 218)
16. 장세업 (No. 236)
17. 이현옥 (No. 242)
18. 유미옥 (No. 246)
19. 명철재 (No. 253)
20. 오영희 (No. 274)

21. 김정란 (No. 299)
22. 구찬서 (No. 302)
23. 심홍섭 (No. 305)
24. 이연진 (No. 307)
25. 어경홍 (No. 322)
26. 민선학 (No. 332)
27. 양임규 (No. 333)
28. 임경애 (No. 336)
29. 유재관 (No. 338)
30. 김용선 (No. 375)
31. 송연우 (No. 382)
32. 양정숙 (No. 388)
33. 최재필 (No. 399)
34. 조경애 (No. 400)
35. 조희주 (No. 401)
36. 김향미 (No. 402)
37. 이현희 (No. 403)
38. 이경혜 (No. 411)
39. 서경춘 (No. 413)
40. 오태식 (No. 423)
41. 차기봉 (No. 428)
42. 오미석 (No. 435)
43. 박혜숙 (No. 443)
44. 홍현숙 (No. 450)
45. 박인애 (No. 459)
46. 이미자 (No. 463)
47. 김화순 (No. 465)
48. 최봉희 (No. 479)
49. 김정희 (No. 504)
50. 이영란 (No. 509)
51. 신은범 (No. 518)
52. 안윤진 (No. 527)
53. 이미숙 (No. 528)
54. 김용주 (No. 535)
55. 김인선 (No. 545)
56. 남대현 (No. 550)
57. 서명순 (No. 567)
58. 문애식 (No. 570)
59. 이현숙 (No. 578)
60. 김경희 (No. 887)
61. 박경순 (No. 589)
62. 홍완성 (No. 593)
63. 김두호 (No. 600)
64. 김은희 (No. 601)
65. 민금옥 (No. 606)
66. 김순자 (No. 609)
67. 김경제 (No. 636)
68. 이준희 (No. 639)
69. 윤철한 (No. 687)
70. 김기홍 (No. 724)
71. 진용철 (No. 736)
72. 권영우 (No. 740)
73. 박내진 (No. 761)
74. 홍영경 (No. 778)
75. 손토비아 (명예회원)

(81년 6월 25일 현재)

- 미납회비 납부자 -

〈제 2 호에 이어 계속〉

1. 민선학 (No. 332. 78, 80년회비)
2. 주미라 (No. 342. 79년 3,000원 80년회비)
3. 김화순 (No. 465. 80년 반액)
4. 이영란 (No. 509. 79, 80년회비)
5. 남인숙 (No. 296. 77, 78, 79, 80년회비)
6. 오영희 (No. 274. 78, 79, 80년회비)
7. 윤은숙 (No. 514. 80년회비)
8. 오영숙 (No. 324. 79, 80년회비)
9. 김정란 (No. 299. 78, 80년회비)
10. 양정숙 (No. 388. 78, 79, 80년회비)
11. 오상열 (No. 77. 77, 78, 79, 80년회비)
12. 고주일 (No. 62. 80년회비)
13. 황현교 (No. 50. 80년회비)
14. 황향숙 (No. 364. 78, 79, 80년회비)
15. 최대림 (No. 99. 80년회비)
16. 임운철 (No. 163. 77, 78, 79, 80년회비)
17. 위석희 (No. 33. 76, 77, 78, 79, 80년회비)
18. 임광수 (No. 238. 79, 80년회비)
19. 황미정 (No. 651. 80년회비)
20. 이재순 (No. 643. 80년회비)
21. 이준희 (No. 639. 80년회비)

- 27
22. 신은범(No.518. 80년회비)
 23. 이주순(No.136. 78, 79, 80년회비)
 24. 박혜숙(No.443. 80년회비)
 25. 김용선(No.375. 80년회비)
 26. 김경제(No.636. 80년회비)
 27. 김인선(No.545. 80년회비)
 28. 김준자(No.205. 78년회비)
 29. 구희서(No.191. 80년회비)
 30. 이명해(No.31. 79, 80년회비)
 31. 김준자(No.609. 80년회비)
 32. 이현숙(No.578. 80년회비)
 33. 김지혜(No.60. 78, 79, 80년 미취업반액)
 34. 김경희(No.587. 80년회비)
 35. 문성숙(No.276. 10,000원 납부)
 36. 문수진(No.218. 78, 79, 80년회비)
 37. 김미숙(No.562. 80년회비)
 38. 조희주(No.401. 80년회비)
 39. 이현희(No.403. 78, 80년회비)
 40. 강후남(No.457. 80년회비)
 41. 최봉희(No.479. 79년회비)
 42. 박경순(No.587. 80년회비)
 43. 김두호(No.600. 80년회비)
 44. 이귀옥(No.525. 80년 미납분)
 45. 박찬의(No.175. 80년회비)
 46. 김인숙(No.45. 80년 반액)
 47. 김향미(No.402. 80년 반액)
 48. 임경애(No.336. 80년 반액)
 49. 오미석(No.435. 80년 반액)
 50. 어경홍(No.322. 77, 78, 79, 80년 반액)
 51. 표성봉(No.129. 77, 78, 79, 80년 회비)
 52. 송연옥(No.382. 78, 80년 반액)
 53. 주경애(No.366. 78, 80년 반액)
 54. 이재형(No.253. 80년)
 55. 유종면(No.223. 78, 79, 80년회비)
 56. 김운태(No.489. 80년회비)
 57. 한기룡(No.217. 77, 78, 79, 80년회비)
- * 인천에서 상업은행 온라인으로 29,000원을 보내
주신 회원은 신원을 협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6월 25일 현재)

- 영구회비 납부 -

윤알마(승자)(신입회원 80,000)
 윤은순(No.514. 80,000)
 이재형(No.253. 80,000)
 장정훈(No.260. 80,000)

- 협회기금찬조 -

김경희(No.587. 4,000)
 이소영재활원(이소영) 100,000
 「정정」 81.4.30자 협회보에 기재된 이소영 재활원
 의 기금내역이 10,000원이 아니고 100,000
 원임에 이에 정정합니다.

- 대의원 등록비 (협회기금찬조) -

참석대의원 $39 \times 3,000 = 116,000$
 (김명수 대의원 1,000원 미납)

→ 회원 소식 <

★ 홍보부장 홍정선 회원이

지난 6월 12일 (PM) 2시 YWCA 4층에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회원 모두의 축복을 바랍니다.

★ 공보이사 박찬의 회원도

지난 6월 20일 1시 (PM) 인천 인하예식장에서
 화축을 밝혔습니다. 회원 모두의 축복을 바랍니다.

★ 오랫동안 협회 재무부장으로서 수고해 온 김인복 회원이 늦게나마 국방의 의무를 수행코자 기술장교 후보생으로 광주 보병학교에 입영했습니다.

→ 지부소식 <

★ 본협회 부회장이신 김용주 회원이

신구전문대와 대만 시립대학공업전자 전문대학교
 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대만으로 떠났으며 7월 4
 일 귀국 예정입니다.

★ 성남 우병원에 물리치료실 개설, 이종운 회원(면허 번호 843)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부에서 온 편지 >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께

수고 많으십니다.

먼곳에서 나마 협회 운영 현황을 환히 보는 것 같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힘쓰시는 모습 상상하며 마음 든든합니다.

계속 추진하시는 사업 또 계획하시는 사업 현회원과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보 내용 중 특히 기능장애훈련원 설치 내용 등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또한 의료보험수가 문제 등 회원 자질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도 꼭 이루어져 알찬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곳에서 일일이 참석하지 못하오나 논문세미나 내용 등은 꼭 이곳 지부에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힘쓰시는 전 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지부장 고경철 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